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승 훈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승훈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 기술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택 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승 훈

김승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나래 (인)

202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6
II. 이론적 배경.....	7
A. 사회적 지지.....	7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특징	7
B. 진로탄력성.....	8
1. 진로탄력성 개념 및 특징.....	8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	10
C. 계획된 우연기술.....	11
1.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및 특징.....	11
2.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	12
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과의 관계.....	13
D.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및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	14

III. 연구 방법	16
A. 연구 대상.....	16
B. 측정 도구.....	16
1. 사회적지지 척도.....	16
2. 진로탄력성 척도.....	17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17
C. 연구절차.....	18
D. 분석방법.....	19
IV. 연구 결과.....	20
A. 기술통계.....	2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21
B.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22
C.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24
D. 연구모형 검증.....	29
1. 구조모형의 타당도 검증.....	29
2. 구조모형의 검증.....	30
3. 매개효과 검증.....	32

V. 결론 및 논의.....	34
A. 결론 및 논의.....	34
B. 제언.....	37
VI. 참고문헌.....	38
VII. 부록.....	48

표 목차

<표 1>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6
<표 2> 진로탄력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17
<표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8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20
<표 5>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1
<표 6>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22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24
<표 8>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25
<표 9> 수렴타당도.....	27
<표 10> 연구개념간의 상관계수.....	28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29
<표 12> 최종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30
<표 13> 최종연구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유의성검증.....	3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6
<그림 2> 측정요인의 확인적 요인 분석.....	26
<그림 3> 최종연구모형.....	31

국 문 초 록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승 훈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내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SPSS 23.0, AMOS 23.0을 사용하여 수집되었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과 계획된 우연기술에 영향을 준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 용어 :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매개효과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Kim Seung Hoon

Advisor : Prof. Kim Tack-Ho,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mediating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was to be conducted on 320 university students are in universities in Gwangju, Seoul, Gyeongsa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was to be conducted a survey through the scale that is social support, career resilience,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For verifying a hypothe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social support affects career resilience and happenstance skills. Thir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ffect career resilience. Fourth,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howed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In conclu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a follow-up study were discussed.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시대 직업 사회는 기술발전 및 정보발전으로 인해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높은 실업률, 많은 비정규직인 고용불안정성, 다양한 직업들이 전문화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문화인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는 직장인 1,039명을 진행한 설문 응답자 93.8%는 현 직장에서 승진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한다고 보고하였다(데일리팝, 2019.10.18.).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와 ‘초연결(Hyper-Connected)’의 특징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 및 증강현실(VR/AR)등 현대 사회부터 미래사회까지 첨단과학 시스템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차 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개발로 인해 일자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2030년에 도달할 때까지 현 일자리의 3분의 2이상이 소멸된다고 보고했다(국민일보, 2018.01.29.).

4차 혁명의 시작으로 모든 분야의 기술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되면서 현 일자리는 사라지고 여러 분야들이 상호 연결되었다. 급변하는 변화에 맞추어 대학들도 융합된 전공들을 개설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10년 안에 직업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김한준, 2018).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변화 및 급격한 직업세계변화, 고용 불안정성은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하며, 이에 따라 직업 세계에서 미래에 불안에 상승했다는 것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전공 안에서의 융합적 사고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 능력이 현 시대에 진로 연구에서 주목받으며, 이런 진로확립과 직업 선택의 측면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대학생 시기에 해당된다(강문진, 2017).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가 성인초기로 발달시기가 전환되며, 이후 생애진로발달에서 결정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직업적 탐색과 선택, 구체적 실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Super, 1955). 대학 재학 시기는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Dayton, 1981),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전환 및 성인기 이후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진로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중요하며, 현재의 적응은 이후 적응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지현, 2009). 그러나 이 시기에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및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4년제 대학생 1831명의 진로 결정 시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 48.6%가 ‘진로결정을 못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 중’ 이라고 보고했다(국민일보, 2018.08.16). 진로결정 시점은 고등학교까지 13.9%, 대학교 1학년 8.5%, 대학교 2학년 9.0%, 대학교 3학년 9.7%, 대학교 4학년 10.3%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면 발달과업에 맞추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결정했던 진로를 다시 고민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시기에도 불구하고 진로선택과 적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김유미, 유혜경, 2012).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혼란을 경험하며(서유란, 이상희, 2012), 스트레스 영역 중에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강경훈, 2010; 김수진, 2018).

현 대학생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진로 선택의 어려워하고 있다. 개인은 직업세계 예측은 어려워서 현 시대는 고용의 안정성 보다는 끊임없는 진로 탐색위한 역량이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의 진로연구에서는 진로탐색 및 준비 등이 주된 연구 주제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진로 장애물을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극복하며,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탄력적이 태도가 요구되는데(김미경, 2014), 본 연구에서 적합한 개념으로 진로탄력성을 설정하였다.

진로탄력성이란 긍정심리학 한 부분인 ‘자아 탄력성’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Noe et al, 1990), 불안정한 진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London, 1983), 개인의 부정적 환경에 대응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김정숙, 이기혜, 2016). 자신의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해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해 가는 능력이다(강현희, 2015; 김미경, 2014; London & Noe, 1997; Lopes, 2006). 또한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호함을 줄이고 예측되지 않는 진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유현실, 2013). 현 시대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진로 및 취업세계에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는 진로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탄력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했다. 진로에서는 개인 능력이 중요하지만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맥락적 변인들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문승태, 박미하, 2013). 이로 보아 개인의 진로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서 진로탄력성이 높아지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며, 특히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Betz, 1989).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자아를 발달시키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이호연, 2017),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할 때 진로 준비를 주도적으로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Blustein, 1997).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로탐색행동에 적극적으로 진로 선택을 해갈 수 있다(이현림, 송재영, 2004). 장계영과 김봉환(2009)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자각하면 진로 변화 과정이 적응적이라고 보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드물지만 일부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이들을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

을 완화시켜주는 진로탄력성과는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13; 정지영, 임정하, 2011). 또한 진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오승국, 2015). 이외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박유미, 2010; 조은래, 2016; 좌문경, 2008; 최경자, 2007). 반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연구 결과(오하나, 2020; 윤영숙, 2019; 염태영, 2017)가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이란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을 활용해 긍정적인 진로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유순화, 2016).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한 진로기회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기술로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를 말한다(Mitchell, Levin, Krunboltz, 1999). 호기심(curiosity)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며, 인내심(patience)은 의도치 않게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유연성(flexibility)은 태도 및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낙관성(optimism)은 오는 기회가 새로울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위험감수(risk taking)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결과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개인의 노력으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진로의 다가오는 사건으로 긍정적 영향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서 탐색 및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적 우연 기술을 발달시키면, 변화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에서 우연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의 진로과정에서 예상이 어렵고 계획되지 않는 우연한 기회로 만드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긍정적으로 진로 발달과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우연적 사건이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손은령, 2012; 송병국, 1998; 최보영 외, 2011; 황현덕, 2012),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특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장선희, 2013). 선행연구들을 보면 진로 탄력성이 계획된 우연의 하위요소인 낙관성과 인내심이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반완성, 김미숙, 2109)이며,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김가형, 2019). 우연에 대한 인식 및 대처 기술이 높으면 진로탄력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권기남, 2016; 반현영, 2011; 조은혜, 2011).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강소희, 2016), 부모 지지가 계획된 우연 간의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부모로부터 진로 관련 지지를 받으면 계획된 우연 역량이 높아진다고 확인하였다(장진이, 2016).

본 연구에서 앞서 살펴본 바,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계획된 우연기술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무슨 영향을 주며,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탄력성을 높여 불확실한 직업세계의 적응하며,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입방법 및 필요한 역할을 제공하려고 한다.

B.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 대상은 대학생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을 검증하고자하며,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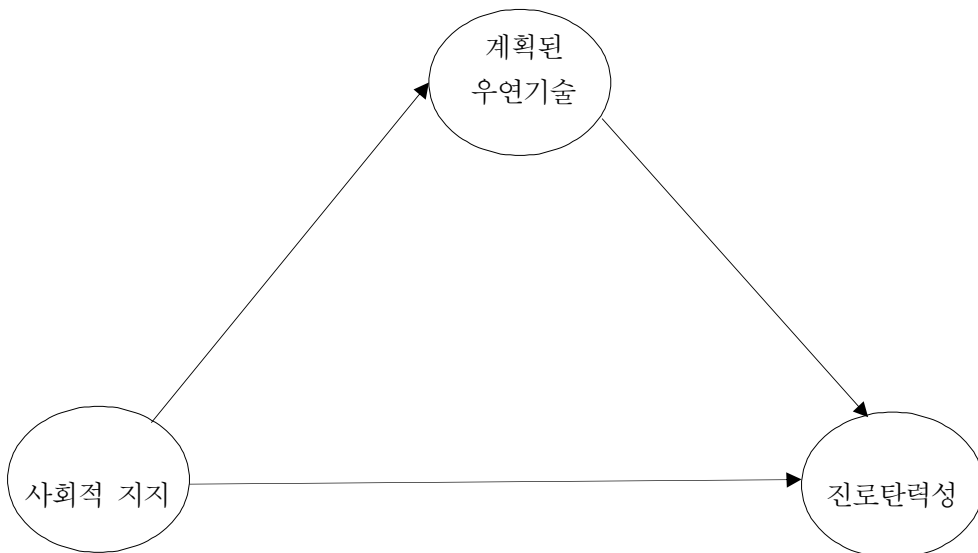
연구가설 1-2.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계획된 우연 기술은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할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사회적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특징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인간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tz,1989). 개인이 주요한 삶의 변화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하며, 사회적 지지가 약할 경우 삶의 변화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박지원, 1985; Thoits, 1982).

사회적 지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처음에는 보살핌과 같은 정서적 지지로만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으나(Cobb, 1976; Procidano & Heller, 1983), 점차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 지지, 기구적 지지, 정보의 제공, 평가적 지지로 제안하였다(Caplan, 1974). 그 이후에는 유형지, 평가적·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였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국내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로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형태로 구분하였다(박지원, 1985).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을 의미하여, 정보적 지지는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 물건 또는 대신하기 등 직접적인 물질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말하고, ‘평가적 지지’는 자기 평가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강소희,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명명하였다.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받은 지지를 말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믿음을 의미하고 지각하는 것(김경자, 2016)이다. 객관적 사회적 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Sarason,

pierce Sherain, Sarasin & Waltz, 1991).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조은아, 2010).

그동안 사회적 지지와 진로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서보람, 2016), 진로태도성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배남희, 2014; 이현진, 2009; 한수현, 2003), 진로적응성(정지은, 2013) 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다수의 진로준비 행동에 관련성이 보였다(김중학, 최보영, 2015; 김인정, 2018; 이현진, 2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오하나, 2020).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여러 진로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 관련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진로 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B. 진로탄력성

1. 진로탄력성의 개념 및 특징

진로탄력성이란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탄력성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다(Noe, Noe, & Bachhuber, 1990). 탄력성의 대표적인 개념인 ‘자아 탄력성’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Noe et al, 1990), 지금은 대체적으로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며 숙련되어지는 능력으로 보며(Gordon, 1995), 탄력적인 행동, 사고, 활동을 배우고 개발함으로써 역경에 적응하는(Rickwood et al. 2004) 긍정적인 능력으로 본다(윤영숙, 2019에서 재인용).

위의 정의로 보아 불안정한 진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London, 1983), 개인의 부정적 환경에 대응해가는 과정에 주목

한다(김정숙, 이기혜, 2016).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닦혔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Noe, Noe, & Bachhuber, 1990). 자신의 진로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진로 관리 및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현희, 2015; 김미경, 2014; London & Noe, 1997; Lopes, 2006). 진로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로과정에서 역경이 있었다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진로탄력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고려하였을 때, 성취욕구, 자신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 또는 협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고(London & Mone, 1987),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최선을 다하기’, ‘진로목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대중적이지 않을 때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말하기’, ‘새로운 학습기술이 필요한 과제 찾기’, ‘혁신적이기’로 구성된 여섯 가지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최유진, 2015). 이후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자기 효능감, 위험감수, 낮은 의존성으로 재분류되어, 재분류된 하위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자아 존중감, 자율성욕구, 적응력, 내적 통제감, 성취욕구, 주도성, 창의욕구, 내적인 작업 기준, 발전경향성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London, 1997), 위험감수의 세부요인으로는 위험감수 경향, 낮은 실패 두려움, 낮은 안정추구 경향,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낮은 의존성은 경쟁경향, 인정욕구, 동료의 인정으로 구성되었다(최유진, 2015). 한편 진로탄력성 측정방법에는 그 하위요인으로 자기신념, 주관적 성공관, 자립성, 변화수용성 등을 제시하였으며(Fourie & Van Vuuren, 1998), 또 다른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신뢰, 변화수용성, 진로자립, 성공에 대한 윤리성(De Bruin & Lew, 2000)등으로 제시되었다(김기승, 2014). 김미경(2014)은 이를 바탕으로 진로 탄력성 척도를 하위 변인 진로 자립, 자기신뢰, 성취열망, 관계활용, 변화대처라는 5개로 구성해 개발했다.

진로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현실(2013)의 연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강남옥, 김장희, 2016). 대학생의 진로탄력성과 진로성

속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이지혜, 2013), 폴리텍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탄력성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강현희, 2015).

종합적으로 진로 탄력성은 진로과정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며,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보다 성숙되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김미경, 2014). 대학생 시기는 여러 진로 선택 및 직업세계로 전환 등 여러 발달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므로, 진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성이 있으며, 이후 삶까지 조력하기 때문에(최지현, 2009), 진로탄력성이 더욱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해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향상시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지원, 1985).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언과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를 대처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기능도 있다(강민정, 2015). 이에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승태, 박미하, 201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최근에서야 진행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염태영, 2017)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윤영숙, 201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류진숙, 2012),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에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요인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혜, 2017). 이와 더불어 다른 대상간의 관계에서도 사회

적 지지와 탄력성간의 유의한 설명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혜수, 2005),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정혜옥, 이옥형, 2011). 그리고 비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을 높여주고, 진로준비행동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한다(김희동, 남수미, 2016)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탄력성 및 탄력성을 향상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탄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려고 한다.

C. 계획된 우연기술

1.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및 특징

계획된 우연은 우연한 사건을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에 의해 잘 이용하는 것이다. Kathleen Mitchell(1990)이 제안을 최초로 하며 발전시켰고 Krumboltz(2009)에 의하여 우연학습이론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인은 우연한 사건을 인식하고 인생에서 우연한 사건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Mitchell과 Krumboltz(1999)는 계획된 우연은 성격적 특성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처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환경적 조건, 유전적 요인, 학습경험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박근영, 2015). ‘호기심(curiosity)’은 학습기회를 새롭게 찾아보는 것이고, ‘인내심(persistence)’은 좌절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유연성(flexibility)’은 상황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낙관성(optimism)’은 새로운 기회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위험감수(risk taking)’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도 행동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연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낙관적 사고를 가지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인내하며 행동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양식을 계획된 우연기술이라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

최근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낙관성 즉, 현재 및 미래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높게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가 있다(신현숙, 2006; 진효정, 2012; Brisete, Scheier, & Carver, 2002; Carver, Kus, & Scheier, 1994).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계획적이게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심해원, 황은숙, 2013). 문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 성향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이주희, 2008). 위 연구들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우연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은 계획된 우연기술은 호감을 타인에게 주고,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자원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증대 및 구축을 위해 계획된 우연기술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부모 지지와 계획된 우연 간의 정적상관 관계를 확인하였고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지지를 받으면 계획된 우연 역량이 높아진다고 확인하였다(장진이, 2018). 또한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연구를 통해 진로결정과정에서 계획 하지 않은 우연적 경험을 하며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얻으면 전환적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그리고 우연의 내용 중 다른 사람의 도움과 추천 등이 확인 되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진로준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타인이 격려가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손은령, 2012). 진로와 관련된 부모 지지가 높을 수록 계획된 우연 즉 불확실성과 우연 등을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역량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이지연, 장지연, 2016). 이는 사회적 지지가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기술

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진로과정에서 긍정적이게 우연 사건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의 관계

우연을 진로과정에서 고려한다면 우연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사람들보다 우연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환경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우연기술 능력을 개발시켜 성공적인 진로과정을 조력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진로탄력성과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진로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적 사건에서 남학생은 우연을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으로 보고, 여학생은 낙관적인 사고로 남녀학생 모두 유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순화, 2016).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우연대처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태도에 긍정적이며 진로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남근, 정미예, 2013).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을 기회전략으로 보고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직무 목표, 긍정적 조직관계, 자기수용, 직무성장, 직무자율성, 환경통제를 의미하는 직업안녕감이 높아짐을 밝혔다(오현주, 2013). 즉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에 실제적인 탐색행동을 증가시키고 입직 후 직업에서의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오현주, 2013). 이처럼 우연대처기술과 진로탄력성의 우연을 인식하는 것 및 대처 기술이 높으면 진로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확인하였다(권기남, 박현영, 2011; 조은혜, 2011).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과 진로적응성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 요인인낙관성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이순희, 손은령, 2013). 그리고 높은 위험감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며(김완재, 정화영, 2007), 위험감수를 통해 새로운 직종에 진입하는 기회를 잡고 선점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오현

주, 2013). 선행연구를 종합해 살펴보면, 우연을 기회로 활용하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D.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및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

진로탄력성은 미래 진로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역경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닦혔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Noe, Noe, & Bachhuber, 1990)은 타인들로부터 제공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과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Cohen & Hoberman, 1983; 박지원, 1985)이 있다면 진로발달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역경이 온다 해도 이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되기에 중요하다.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연구를 통해 진로결정과정에서 계획 하지 않은 우연적 경험을 하며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얻으면 전환적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탄력성은 미래 진로발달에서 여러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이므로 직업세계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식 및 확신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세계의 특징을 인정하고, 특징을 최대한 사용하는 기술은 진로발달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장선희, 2013). 이와 같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로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진로적응을 이루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발달에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주며, 진로탄력성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변인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는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계획된 우연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보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 하는지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남녀 대학생 330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에 응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문항을 누락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06명(64.4%), 여학생 114명(35.6%) 총 320부가 최종 분석에 자료로 사용되었다.

B. 측정 도구

1.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자 이현진(2009)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지원(1985)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윤혜정(1993)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고, 이현진(2009)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다시 수정한 척도이다.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서지지 7문항, 정보지지 6문항, 물질지지 6문항, 평가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까운 주변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현진(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지지 .927, 정보지지 .909, 물질지지 .904, 평가지지 .893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전체는 .969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32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서지지	1,2,3,4,5,6,7	7	.744
정보지지	14,15,16,17,18,19	6	.682
물질지지	20,21,22,23,24,25	6	.766
평가지지	8,9,10,11,12,13	6	.675
합 계	1 - 25	25	.889

2. 진로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2014)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진로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6문항씩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역경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신뢰 .875, 성취열망 .878, 진로자립 .874, 변화대처 .843, 관계활용 .897, 진로탄력성 전체는 .933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표 2>과 같다.

<표 2> 진로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32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신뢰	1,2,3,4,5*,6	6	.724
성취열망	7,8*,9,10,11,12	6	.775
진로자립	13,14,15,16,17*,18	6	.693
변화대처	19,20*,21,22,23*,24	6	.757
관계활용	25,26,27,28,29*,30	6	.720
전체	1 - 30	30	.906

*는 역채점 문항임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계획된 우연기술 측정을 위해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하여, Kim, Jang, Jung, Lee, Rhee, Cho 및 Lee(2014)가 개발한 ‘계획된 우연 척도(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를 사용하였다. 이는 김보람(2012)의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Career-related Planned Happenstance Scale; CPHS)’의 버전을 개정한 것이다. 5개 하위요인(호기

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서 각각 5문항 총 25개 문항으로 Likert척도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진로상황의 우연적 사건을 긍정적 및 적극적인 활용한다면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Kim 등(2014)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4이고, 호기심 .738, 인내심 .817, 유연성 .751, 낙관성 .854, 위험감수 .75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표 3>과 같다.

<표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32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호기심	1,2,7,20,21	5	.709
인내심	3,8,9,15,24	5	.717
유연성	4,10,14,16,22	5	.693
낙관성	5,13,17,18,23	5	.745
위험감수	6,11,12,19,25	5	.749
전체	1 - 25	25	.901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년 9월~10월 동안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소재한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0부의 설문지는 직접 설문지를 돌려 수거하였으며, 280부의 설문은 대학생 커뮤니티, SNS, 취업관련 및 대학관련 카페 등과 대학교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수거하였다. 한 학년 및 소수 전공계열에만 편중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 다양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배부 및 실시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예상되며, 문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하고 320부를 통계적 분석 및 가설검증을 실시했다.

D.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 23.0을 이용해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해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했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각 척도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며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 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잠재 변인을 측정 변수들이 잘 구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 타당성 확인을 위해 연구모형에 대해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 절대적합지수인 χ^2 , GFI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TLI, IFI 그리고 RMSEA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증해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술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20)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206	64.4
	여	114	35.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8	40.0
	사범계열	18	5.6
	자연계열	61	19.1
	공학계열	23	7.2
	의학계열	36	11.3
	예체능계열	13	4.1
	경상계열	30	9.4
	외국어계열	5	1.6
	기타	6	1.9
학교 및 학년	1학년	72	22.5
	2학년	85	26.6
	3학년	84	26.3
	4학년	70	21.9
	기타	9	2.8

<표 4>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을 남은 206명(64.4%), 여는 114명(35.6%)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은 128명(40.0%), 사범계열은 18명(5.6%), 자연계열은 61명(19.1%), 공학계열은 23명(7.2%), 의학계열은 36명(11.3%), 예체능계열은 13명(4.1%), 경상계열 30명(9.4%), 외국어계열 5명(1.6%), 기타 6명(1.9%)로 나타났다. 학교 및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은 22.5%(72명), 2학년은 26.6%(85명), 3학년은 26.3%(84명), 4학년은 21.9%(70명), 기타 2.8%(9명)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을 위해 기초자료로 사회적 지지(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 진로탄력성(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계획된 우연기술(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5>과 같다. 정규성 검정을 검토했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 왜도는 절대값 3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 SPSS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 값 3을 제외한 결과로 해석할 때는 해석한다. 이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20)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지지	320	1	5	4.12	.525	-1.564	4.467
정보지지	320	1	5	4.12	.502	-1.556	5.815
물질지지	320	1	5	4.09	.579	-1.288	2.900
평가지지	320	2	5	4.20	.494	-1.407	3.931
사회적지지	320	2	5	4.14	.419	-1.747	5.434
자기신뢰	320	1	5	3.86	.605	-.870	.971
성취열망	320	2	5	3.93	.543	-.827	.943
진로자립	320	2	5	4.02	.515	-1.097	1.214
변화대처	320	2	5	3.98	.634	-.791	-.110
관계활용	320	2	5	4.01	.526	-1.122	1.796
진로탄력성	320	2	5	3.97	.488	-1.071	.936
호기심	320	1	5	4.11	.485	-1.440	5.449
인내심	320	1	5	4.04	.586	-1.366	3.403
유연성	320	1	5	4.08	.547	-1.394	4.275
낙관성	320	1	5	4.08	.586	-1.818	5.318
위험감수	320	2	5	4.07	.605	-1.157	1.916
계획된우연기술	320	1	5	4.09	.443	-1.855	6.451

B.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을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N=3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정서지지	1																
2. 정보지지	.651 **	1															
3. 물질지지	.616 **	.655 **	1														
4. 평가지지	.571 **	.551 **	.635 **	1													
5. 사회적지지	.776 **	.782 **	.816 **	.824 **	1												
6. 자기신뢰	.453 **	.397 **	.438 **	.411 **	.458 **	1											
7. 성취열망	.438 **	.433 **	.525 **	.516 **	.524 **	.622 **	1										
8. 진로자립	.491 **	.495 **	.499 **	.542 **	.546 **	.747 **	.731 **	1									
9. 변화대처	.385 **	.355 **	.450 **	.444 **	.455 **	.708 **	.670 **	.741 **	1								
10. 관계활용	.607 **	.551 **	.553 **	.583 **	.622 **	.648 **	.752 **	.799 **	.674 **	1							
11. 진로탄력성	.526 **	.499 **	.559 **	.567 **	.585 **	.862 **	.836 **	.893 **	.873 **	.859 **	1						
12. 호기심	.437 **	.458 **	.479 **	.497 **	.461 **	.483 **	.537 **	.528 **	.577 **	.564 **	.608 **	1					
13. 인내심	.449 **	.383 **	.451 **	.424 **	.437 **	.546 **	.573 **	.599 **	.613 **	.599 **	.654 **	.533 **	1				
14. 유연성	.500 **	.423 **	.565 **	.484 **	.511 **	.547 **	.654 **	.623 **	.626 **	.588 **	.672 **	.487 **	.571 **	1			
15. 낙관성	.577 **	.556 **	.494 **	.582 **	.578 **	.655 **	.605 **	.749 **	.536 **	.709 **	.720 **	.502 **	.651 **	.611 **	1		
16. 위험감수	.378 **	.382 **	.487 **	.506 **	.454 **	.525 **	.697 **	.588 **	.637 **	.551 **	.665 **	.535 **	.543 **	.712 **	.646 **	1	
17. 우연기술	.545 **	.485 **	.562 **	.558 **	.538 **	.643 **	.724 **	.736 **	.718 **	.714 **	.784 **	.760 **	.776 **	.778 **	.799 **	.822 **	1

*p<0.05, **p<0.01

주요 변인들과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 탄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585, p<.01$). 진로탄력성의 하위영역 또한 자기신뢰($r=.458, p<.01$), 성취열망($r=.524, p<.01$), 진로자립($r=.546, p<.01$), 변화대처($r=.455, p<.01$), 관계활용($r=.622,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538, p<.01$). 하위요인들을 보면, 호기심($r=.461, p<.01$), 인내심($r=.437, p<.01$), 유연성($r=.511, p<.01$), 낙관성($r=.578, p<.01$), 위험감수($r=.454,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로탄력성과 계획된 우연기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784, p<.01$). 각각의 하위영역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608\sim.665, p<.01$).

C.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검증 후 구성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해 각 잠재변인들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을 했다. 본 연구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되었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모형의 적합도가 좋으면 증분적합지수 중 CFI 및 TLI 값이 높으며, 대략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어 진다. 반면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값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 RMSEA 수치가 .05 미만 이면 아주 좋은 적합도 .08미만 이면 좋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초과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난다(Browne & Cudeck, 1993). Standardized RMR 값은 0.05~0.08이하 이면 적당하다고 해석이 된다(Hu&Bentler, 1999).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TLI지수가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았다. 김상욱(2016)은 이론적 개연성 이외에 경험적 기준인 수정지수 등으로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수정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증분적합지수 TLI 기준치인 0.9값을 보였고, CFI는 기준치인 0.9 이상으로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SRMR는 0.1 이하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기준치인 .10미만의 값을 보였고, 양호한 적합도를 전반적으로 보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SRMR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초기모형	404.570	74	.000	.881	.903	.118	.107	.130	.045
최종모형	358.389	71	.000	.902	.916	.093	.081	.124	.04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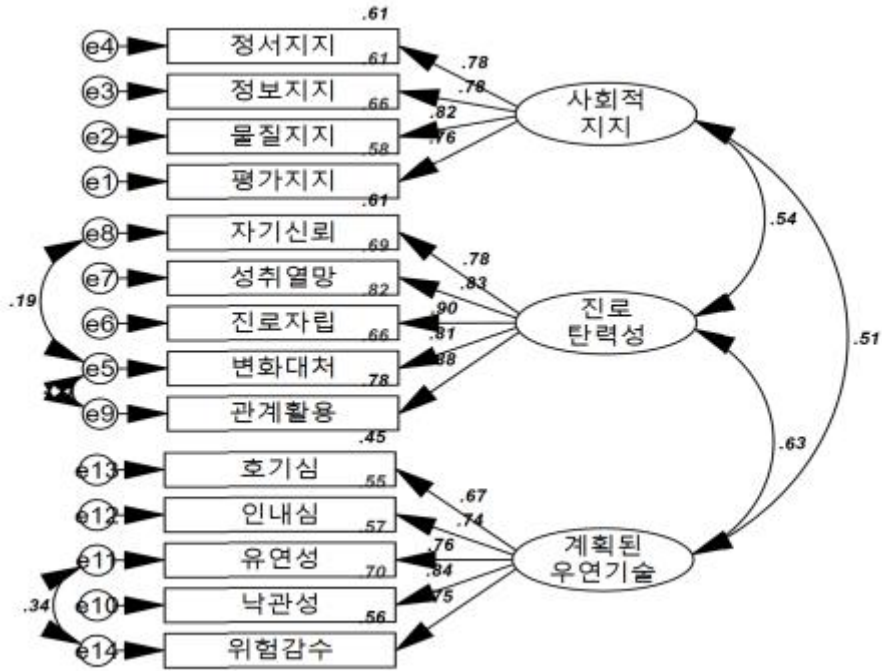
(1) 집중타당성

<표 8>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경로항목		Estimate	S.E.	β	C.R.	P
평가지지	<-- _ 사회적_지지	1.000		.760		
물질지지	<-- _ 사회적_지지	1.258	.086	.815	14.555	***
정보지지	<-- _ 사회적_지지	1.044	.075	.780	13.892	***
정서지지	<-- _ 사회적_지지	1.092	.079	.781	13.911	***
변화대처	<-- _ 진로_탄력성	1.000		.811		
진로자립	<-- _ 진로_탄력성	.906	.047	.905	19.483	***
성취열망	<-- _ 진로_탄력성	.877	.051	.830	17.237	***
자기신뢰	<-- _ 진로_탄력성	.919	.052	.781	17.648	***
관계활용	<-- _ 진로_탄력성	.902	.050	.881	17.970	***
낙관성	<-- _ 계획된_우연기술	1.000		.838		
유연성	<-- _ 계획된_우연기술	.841	.054	.755	15.569	***
인내심	<-- _ 계획된_우연기술	.885	.058	.742	15.224	***
호기심	<-- _ 계획된_우연기술	.664	.050	.673	13.305	***
위험감수	<-- _ 계획된_우연기술	.918	.060	.745	15.279	***

***p<.001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표 8>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표준화된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며 측정 모형이 자료에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측정요인의 확인적 요인 분석

(2)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렴타당도는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측정하였다. 수렴타당도 평가 기준은 개념신뢰도가 0.7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이 0.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해석을 한다.

<표 9> 수렴타당도 검증

변수	개념신뢰도	AVE
사회적 지지	.959	.854
진로 탄력성	.974	.881
계획적 우연기술	.954	.808

(3) 판별타당성

판별 타당도는 두 연구 개념의 평균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두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지를 확인하여 각각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다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연구개념 간 상관계수를 제곱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평균분산추출지수를 비교했을 때, 모든 연구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의 크기는 0.286~0.403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념 중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값 .808보다 작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두 연구 개념 각각의 평균 분산추출지수가 두 연구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변인들의 판별타당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의 검증에서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인 검증을 한다. 그 이유는 변수들이 많을시 모든 변수들 간 검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판별타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 가장 높은 변수 간 상관을 선택했다.

<표 10> 연구개념 간의 상관계수

			상관계수제곱
사회적_지지	<-->	진로_탄력성	0.286
사회적_지지	<-->	계획된_우연기술	0.259
진로_탄력성	<-->	계획된_우연기술	0.403

D. 연구모형 검증

1. 구조모형의 타당성 검증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CMIN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초기모형	358.389	71	5.048	0.013	.871	.809	.916	.898	.917	.113
최종모형	327.313	68	1.813	0.013	.909	.912	.924	.907	.925	.090

<표 10>은 경로분석의 전체적이 결과표이다. 적합도의 기준으로는 보통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RMES 등 사용하게 되면 CMIN/DF는 2보다 낮아야 한다. RMR은 보통 0.05이하 이어야 하고, GFI, AGFI, CFI, NFI은 보통 0.9이상이면 적합하며 RMSEA는 0.05 이하면 좋 으며, 0.1~0.05이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적합도 및 절대기준치는 아직 통계학적으로 제시되었지는 않았지만 위 기준들은 통상적으로 적합한 기준치라고 본다. 즉,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연구에 따라 상대적이다.

적합도 검증 결과, CMIN, GFI, AGFI, RMSEA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김상욱(2016)은 이론적 개연성 이외에 수정지수 등의 경험적 기준으로 모형을 가다듬고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관측변수 중 수정 지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적합도 수치를 올리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공분산 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 RMR=0.013, GFI=.909 AGFI=0.912. NFI=0.938, RMSEA=0.090, CFI=0.924 그리고 CMIN/DF=1.813 모든 수치가 양호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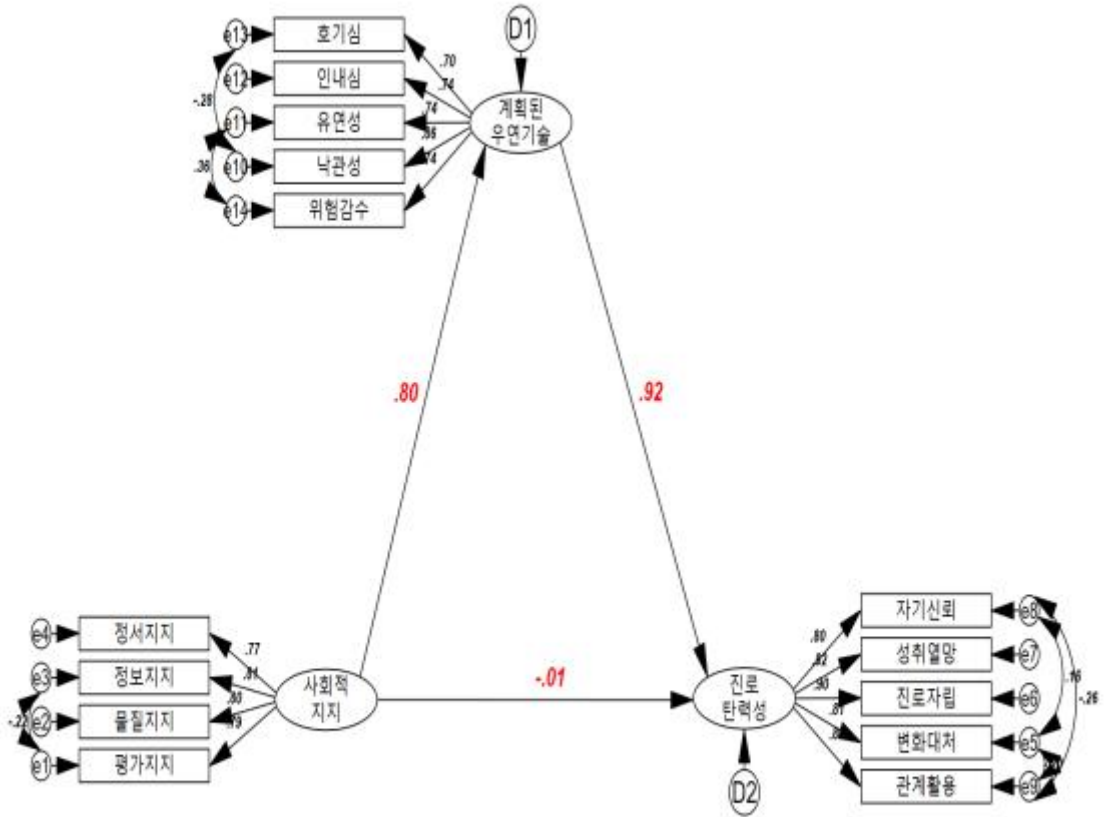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계수로 모형의 효과성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우연기술의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1.03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2.65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정적 영향을 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1.034이므로 사회적지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계획된 우연기술은 1.034 증가하게 된다.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탄력성의 비표준화 베타의 값은 0.939으로 보였다. 검정통계량을 보면, t값이 10.450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939이므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진로탄력성은 0.939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7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72 이고 유의확률이 0.9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종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항목		Estimate	S.E.	β	C.R.	P
계획된 우연기술	<- 사회적 지지	1.034	.082	.797	12.653	.000
진로 탄력성	<- 계획된 우연기술	.939	.090	.917	10.450	.000
진로 탄력성	<- 사회적 지지	-0.007	.095	-0.005	-0.072	.942

*** $p < .001$



[그림 3] 최종연구모형

3.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매개변수라 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연결하는 변수이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 및 종속변수의 원인의 변수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숨겨진 인과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유의한 매개변수가 존재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라고 한다. 직접효과는 매개변수가 있지만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간접효과는 매개변수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는 매개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값의 합은 전체효과라고 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해 최종모델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추정 후 직접 및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12>로 제시하였다.

<표 13> 최종연구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및 유의성 검증

예언변인	준거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사회적 지지	계획된 우연기술	-.797 (.699~.872)** p=.001		-.797 (.699~.872)** p=.001
	진로 탄력성	-.005 (-.206~.174)* p=.934	.731 (.580~.951)** p=.000	.726 (.631~.799)** p=.000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 탄력성	.917 (.760~.993)** p=.001		.917 (.760~.993)** p=.001

<표 12>를 보면,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에 대해 직접효과는 -0.005 이고, 사회적 지지가 계획된 우연기술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713$ 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Bootstrapping 검증결과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획된 우연기술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므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

VI. 결론 및 논의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고,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두 변인 사이에서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요인인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는 진로탄력성 및 하위요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변사람들에게 긍정적 자원 및 지지를 받는 대학생들은 진로의 어려움에도 유연히 대처하는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진로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염태영, 2017; 윤영숙, 2019)하고 같은 맥락을 보인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 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하위요인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모두 진로탄력성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서 노력함으로써 기회를 만들면 진로과정에서 역경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로관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계획된 우연기술을 개발해 진로에서 성공적인 진로적응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으로 시사되며, 우연에 대한 인식의 대처기술이 높으면 진로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권기남, 2016; 박현영, 2011; 조은혜, 2011)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는 계획된 우연기술 및 그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예측한 불가능한 미래를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기술은 외부적인 지지까지 받는 믿음은 크게 효율적일 수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나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매개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은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높일 수 없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을 함께 고려하고 높여줘야 진로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매개변인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상담이나 진로 관련프로그램에서 환경·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만 받는다고 바로 진로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내적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진로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발달해야할 진로특성이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며, 변화 기회를 탐색하고, 학습하며, 성실히 노력하는 요소이다. 상담자와 교사는 내담자에의 적극적인 탐색으로 진로과정의 사건들을 많이 하도록 지지하고, 진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연 기술을 발달하도록 조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Michell, Levin, Krumboltz(1999)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획된 우연 기술을 향상을 조력하는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을 본 연구를 근거하여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관련해 진로 연구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김현옥, 2014; 박근영, 2014; 차영은 외, 2015; 최보영 외, 2011; 황현덕 외, 201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 기술 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진로 연구 및 상담에서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났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 및 사건 등의 우연 요소를 통해 진로발달이 이를 수 있다는 연구 동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연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진로탄력성의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환경·맥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진로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탄력성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상담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인 진로 탄력성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는 점을 제공한다.

B.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 서울, 경남,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총 표본이 320명의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설문이 비대면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구두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부주의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인해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방어, 불성실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는 실험, 행동관찰법,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자료 수집으로 측정하였으며, 시간흐름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적 측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는 진로발달 과정에 대해 다양한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기술만이 연구해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진로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변인 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대학생들이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자의 개입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이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진로과정을 힘들어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 및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입증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IV. 참고 문헌

- 김가형 (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
획된 우연기술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4).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
조적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13(3), 1054-1060.
- 국민일보(20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88940>
- 권기남 (2016). 지각된 진로장벽과 우연대처기술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0).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과 위험감수
수준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4).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
조적관계. 경기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미경, 안윤정, 김경아 (2018). 대학생의 진로정서조절과 진로미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8(19), 889-918.
- 강남옥, 김장희 (2016). 진로탄력성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인문학논총*, 41,
181-208
- 강문진 (2017).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강민정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경훈 (2010). 대학생이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 (2016). 대학생의 진로신념과 관련요인들의 관계 구조 분석. 충북대

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정 (2018). 사회적 지지가 직업훈련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18). 고등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청소년-부모 진로일치의 조절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소희 (2016).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 유혜경 (2012). 고위험군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3, 215-230.
- 김봉환·이제경·유현실·황매향·공운정·손진희·강혜영·김지현·유정이·임은미·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 학지사, 189.
- 김보람 (2012). 계획된 진로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성훈, 이상민 (2016).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91-508
- 김세연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욱(2016). 공분산구조분석의 모형추정 절차: 방법론적 진단 및 처방. *한국조사연구학회*, 17(1), 55-70
- 김완재, 정화영 (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 김중학, 최보영 (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43-169.
- 김희동, 남수미 (2016).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

- 구, 14(2), 53-80
-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지지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데일리팝(2019).<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4>
-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인지된
고용가능성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79-104.
- 배남희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분희 (2019).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진로탄력성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347-1368.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영 (2011).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사건의 역할 : 진로적응성을 매개
효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남희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
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96-116.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2015).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
구*, 4(1), 1-27.
- 서경희,곽원준, 심지현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
연구*, 5(4), 57-88.

- 서보람 (2016).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민경, 조한익(2016). 청소년의 불안/우울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사회적지지 및 갈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1-23.
- 심해원, 황은숙 (2013). 시간관리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 1-2
- 손은령 (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손은령 (2012). 직업 성취과정에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 :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437-453
- 송병국 (1998). 성인노동자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이 미친 영향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4), 65-88.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2013). 작업자의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태영 (2016).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윤정, 오현주 (2012). 직업상담사의 직업선택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25(4), 117-140
- 유순화 (201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6(3), 149-168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이상희, 신상수 (2012).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인간이해*, 33(1), 1-20
- 이상희,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2005.
-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에 관계에 대한 성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39-59
- 이지혜 (2014).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7).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 (2008).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연 (201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염태영 (2016).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하나(2020).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승국 (2015). 중장년 남성 실직자의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영숙 (2019).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자기개념명확성, 사회적지지 및 진로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실,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 시사점상담학연구, 14, 423-439, 2013.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희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에서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 이옥형 (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4.
- 장진이, 천영민, 홍원경(2017).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변인과 역량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8(6), 219-238.
- 장진이, 이지연. (2016).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역량에 따른 군집 유형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7(1), 47-65.
- 장계영, 김봉환 (2009). 진로상담: 진로전환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0(1), 399-415.
- 주금재 (2015). 201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8, 47-68.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조남근, 정미예 (2013).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337-357.
- 조은아 (2010). 낙관성 비관성이 대학생활적응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 목표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혜 (2011). 취업준비활동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은래 (2017).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수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학

- 생활상담*, 23, 57-81.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중앙일보 (20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794>
- 최경자 (2007).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영 외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 Career Futures Inventory(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최유진 (2015).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영은 (2013). 201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6, 45-68.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최미경 (2016).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兒童學會誌*, 37(3), 53-68.
- 최유열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선 (2014). 2013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7, 49-72.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황진아, 김은하 (2016). 상담 전공 석사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간의 관계: 자기성찰을 통한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

- 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289-312.
- 황현덕 (2012). 계획된 우연성이 고등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덕 외 (2012).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20(2), 193-210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for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1), 47-57
- Brisete, K., Scheier, M. F., & Carver, C. S. (2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
- Carver, C. S., Kus. L. A., & Scheier, M. F. (194). Efect of godversus bad mod and optimistic versus pesimisticoutlok on social acceptance versus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138-151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Behavioral Publication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Gordon, K. A.(1995). The self-concept and motivational patterns of resilient Afric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1, 239-255.

-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 55–69.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620–630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Helping employees make tough career decisions, staymotivated, and reduce careerstress. Jossey–Ba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s,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1), 79–122.
- Noe, R., Noe, A., & Bachhuber, J. A. (1990).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Rickwood, R. R., & Roberts, J. (2002). Empowering high - risk clients: Exploring a career resilien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sultation on Career Development Conference, Ottawa, ON.
- Sarason, J. P., Pierce, C. R., Shearin, E. N., Sarason, I. G. & Waltz, J. A.(1991). Perceives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 Super , D. E., & Knasel, E. G. (1979). The Development of a Model, specifications, and sample Items for Measuring Career Adaptability (Vocational Maturity) in Young Blue-collar Workers. Hertford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s Education and

Counselling.

- Kim, B., Jang, S. H., Jung, S. H., Lee, B., Rhee, E., Cho, S. H., & Lee, S. M. (2014).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 239–253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VII. 부록

< 부록 1 > 사회적 지지 척도

다음은 주변사람들(가족, 친척, 교수, 친구, 선후배)의 반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소 자신의 느낌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몸져누웠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진로 탄력성 척도

다음은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자신을 잘 설명하는 곳에 [V]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에서 어떤 일도 결국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진로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추구하는 삶의 비전(목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성공의 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꿈과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생각하면 의욕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 관련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진로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관련하여 잘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배우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진로를 위해 준비하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역동적인 변화를 오히려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1	낯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2	갑작스런 변화에도 짜증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진로에 갑작스런 변화에도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진로에서 좌절했을 때 친구나 가족의 위로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 주위에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계획된 우연 기술 척도

다음은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자신을 잘 설명하는 곳에 [V]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뜻밖의 기회가 생기는 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진로의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6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진로를 추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진로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하나의 진로만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유연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지닌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진로탐색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을성 있게 나의 길을 가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진로에 있어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보다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위해 잘 모르는 것에 도전하는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활동들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연히 얻은 직업 정보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세운 진로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처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 진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진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그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